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70호 관련)

2022. 11. 2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4:00~17: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21호~제227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70호 『쌍용양회공업(주) 등 576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2018년 7월 5일에 코스텍이라는 종목에서 ◇◇◇◇◇증권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음. 딱히 호재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한 5% 가까이 주가를 올리고 팔아치우고 나가는 것을 봤음.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봐도 시세조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갔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시세조종 이런 것을 일삼으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보니 이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 도박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 (위원) 혹시 개인투자자들 간에 누군가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지?
- ▶ (진술인) 이것을 사면 분명히 지는 싸움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는 것이 꺼려짐. 작전세력이 있는데 들어가기에는 무섭다고 생각함.
- (위원) 관련해서 진술인께서는 피해를 보신 것이 있으신지?
- ▶ (진술인) 저는 해당 종목을 관찰만 했고 제가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없음. 그런데 종목토론방 이런 곳을 보니까 손실을 봤다는 글을 봤음.

○ (위원) 진술인께서는 실시간으로 보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HTS(Home Trading System) 같은 것으로 매매를 하다가 그 주가가 변하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호가창 이런 것을 보고 있었음.

○ (위원) 그러면 호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 (진술인)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런데 장 끝나고 주가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결국 호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그것을 목격할 당시에는 ◇◇◇◇증권사 계좌인 것은 모르셨는지?

▶ (진술인) 증권사 현황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가 눈에 띄었음.

○ (위원) 전에 그것을 보신 적이 있어서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눈에 띄었는지?

- ▶ (진술인) 전에도 비슷한 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날 완전히 조작을, 시세조종처럼 보이는 것을 처음 봤음. ◇◇◇◇이게 좀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날 시세조종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 봤음.
- (위원) 동 사안의 핵심내용은 ◇◇◇◇를 통해서 특정 외국계 회사가 시세 내지는 시세의 방향성을 주도했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여타 투자자, 그것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추종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임. 물론 당해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세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자기들은 추종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그래서 진술인께서는 그것이 ◇◇◇◇이든 다른 외국계 회사이든 간에 특정매매를 주도했던 부분이 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세를 주도한 것이며, 그리고 개인이든 기관투자자든 여타 투자자들이 추종해서 따라갔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보통 특정한 호재나 특정한 이유 없이 주가를 확 올리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니까 개인투자자인 제가 보기에선 정황상 시세조종으로 보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 (위원) 6%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고 있으셨다는 얘기는 그 주식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보고 있으셨다는 것 같음. 그

이전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 (진술인) 없음. 그래서 깜짝 놀라 신고를 하게 되었음.

○ (위원) 매수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 (진술인) 추격매수에 들어가면 소위 ‘콩고물’이 약간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음. 결과적으로 안 들어간 것이 맞았음.

○ (위원) 주위에 따라 들어간 분이 있는지?

▶ (진술인) 종목토론방 이런 곳을 보면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음. 다른 사람, 개인투자자가 분명히 샀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진술인께서는 주식 투자한 경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진술인) 그때 당시에 한 3년차였음.

○ (위원) 다른 직업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업투자자이신지?

▶ (진술인) 전업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하루종일 보고 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